방위사업청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3. 1. 13.(금) 08:00	배포 일시	2023. 1. 13.(금) 08:00
담당 부서	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	책임자	부 장 고위공무원 방극철 (02-2079-5500)
		담당자	팀 장 서기관 이정숙 (02-2079-5570)

차기 소해함(MSH-II) 기본설계 착수

- 주요 핵심장비 국내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으로 소해능력 향상 -

□ 방위사업청(청장 엄동환)은 1월 13일(금) **1조 7,800억원 규모 「소해함(MSH-Ⅱ) 사업」의 함정 기본설계에 착수**한다고 밝혔다.

□ 소해함[1](MSH-Ⅱ)은 1980년대부터 운용하여 수명주기가 도래한 기뢰탐색함[2](MHC)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**기뢰[3]탐색 및 소해[4]능력 등이 더욱 향상된 함정**이다.

<소해함(MSH-II) 형상(안)>

□ 지난해 12월 ㈜강남과 함정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하고, 금일 착수회의를 실시함으로써 **소해함(MSH-Ⅱ)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**에 올라서게 되었으며,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, 이후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를 거쳐 2029년에 첫 함정을 전력화 할 계획이다.

---

1) 소해함(MSH) : 기뢰의 탐색 및 처리가 모두 가능한 함정
2) 기뢰탐색함(MHC) : 수중에 부설된 기뢰의 탐색을 주목적으로 하는 함정
3) 기뢰 : 적의 함선을 파괴하기 위하여 물속이나 물위에 설치하는 폭탄
4) 소해 :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바다에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는 행위

□ 특히, 핵심 장비인 **기뢰탐색음탐기**[5], **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**[6] 등을 **국내 연구개발**함으로써 **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**하고 **국방과학기술 축적과 국내 경제에**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아울러, **수중자율기뢰탐색체**[7], **무인기뢰처리기**[8], **소모성기뢰제거처리기**[9] **등 다양한 무인체계 운용**을 통해 작전수행이 어려운 해역에 대한 **작전 범위 확대, 전투요원의 생존성 향상, 인력과 비용의 감소 등**을 기대하고 있다.

□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(고위공무원 방극철)은 "소해함(MSH-Ⅱ)은 그동안 국외 도입하던 **주요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고, 유·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되어 미래 기뢰전 환경에 대응**하는 무기체계인 만큼, **기본설계 착수가 가지는 의미가 특별**하다." 라고 밝혔다. <끝>

5) 기뢰탐색음탐기 : 초음파를 발신하여 그 반사 파동으로 수중의 기뢰를 탐지하는 장비
6)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 : 자기, 음향, 압력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폭발하도록 설계된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
7) 수중자율기뢰탐색체 : 자동으로 항해하여 광역해역에 대한 수중탐색을 통해 기뢰를 식별하는 장비
8) 무인기뢰처리기 : 원격조정으로 기뢰를 탐색, 식별 및 처리하는 장비
9) 소모성기뢰제거처리기 : 무인기뢰처리기 대비 소형·경량으로 회수가 불필요한 소모성 장비